

# 도시락마다 나눔의 행복과 보람 '꼭꼭'

## 바라밀현장

### '나눔마을' 금화사 봉사자

11월 4일 강동구 강일동의 한 골목길로 들어서니 쓰러져가는 판자집들이 즐비하다. 지붕이 내려앉은 집, 찢어진 비닐로 감싼 집들이 버려진 등네를 연상케 한다. 과연 사람이 사는 집일까 하는 생각에 대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놀랍게도 낮고 어린 할머니 음식이 전해져온다.

"이제 왔어?"  
"예, 할머니 나눔마을이예요."  
사회복지법인 나눔마을(이사장 각현스님) 박왕호(41) 상임이사가 인사하며 도시락을 건넨다. 할머니는 앞을 보지 못해 손끝으로 도시락을 훑는다. "고마워... 먹고서 내 잘 씻어 놓을게..."

매주 화요일 강동구 일대 불우이웃의 도시락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회복지법인 나눔마을 이사 박왕호 씨와 서울 금화사 신도 20여명이 바로 그들. 이들은 매주 나눔마을 사무실에 모여 불우이웃에게 전달할 반찬을 만든다. 마을을 직접 돌며 그들의 생활을 지켜봐왔기에 음식을 준비하는 손끝 하나 하나에는 각별한 정성이 배어있다.

"기본적인 생활여건도 마련하지 못했지만,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틈새 불우이웃'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자식에게 버림받아 가난에 상처까지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말이요."  
운상금(59) 씨 말대로 나눔마을 봉사자들이 주목하는 대상은 주로 기초생활 수급자 바로 위 저소득층인 '차상위계층'이다. 봉사자들은 규모가 큰 복지단체들조차 간과해왔



◀나눔마을 주방에서 금화사 신도 봉사자들이 완성된 밑반찬을 시식하며 반찬통에 배분하고 있다. 사진=고영배기자

### 틈새 불우이웃에 도시락 봉사

### 노인들 위한 반찬 준비에 정성

### 무료진료등 지원활동도 다양

던 '틈새'를 자신을 손으로 메꿀 것을 꿈꾸며, 반찬만들기 삼매에 젖어든다.  
"독거노인들은 밥을 제대로 쪄겨 드시지 않습니다. 치르비 지불 등 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들에겐 우선이죠. 그래서 밑반찬 식단을 잘 짜는 한 끼 식사로 그칠지라도 영양에 대한 고려가 앞서게 되더군요."

박정숙(44) 씨는 간편하게 오래 먹을 수 있는 저장식품류를 굳이 고집하지 않는다. 코다리찜과 같은 경우 며칠을 두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지만, 영양은 물론이고 맛과 향으로 미각과 후각을 돌볼 수 있다는 생각에 주 메뉴로 선정하기도 한다. 이는 상대를 고려하는 마음씀씀이에서 비롯된다.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삶을 함께 나누는 이웃'이라 여기는 마음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복지가 특별한 것이겠어요? 이웃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눈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상대의 자존심을 생각지 않고 '주는 행위'에만 매달려서는 안돼요. 봉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스스로를 경계해야 합니다."  
나눔마을을 홀로 이끌다시피하는 박왕호

이사는 반복되는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봉사를 지원하고 있다. 밑반찬 봉사 외에도 격주 무료 한방 진료를 벌이는 동시에, 매달 지역 노인들을 초청해 경로잔치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도매, 장판지 교체 등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비롯, 겨울철에는 난방연료와 의류, 김치 등을 지원하기도 한다.  
불교의 존재 이유가 '복지'라는 이름의 '중생구제'에 있다고 믿는 나눔마을 봉사자들. 그들은 어려운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봉사를 벌이며 부처님 자비를 몸소 실천에 옮긴다. 그리고 함께 믿음을 만들어 간다. 우리의 손과 발에서 지역 불국토의 자양분을 생산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02)3402-1515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 실천이 따라야 진정한 봉사조



대전 서구노인복지관 돕는 '세등선원 신도회'

◀세등선원 신도회 주방봉사팀이 서구노인복지관 주방에서 호흡을 맞추고 있다.

"7년째 초발심 그대로 자비행을 실천하는 보기 드문 불자들이입니다."  
대전 서구노인복지관에서는 '세등선원 신도회' 보살들을 진자 '보살'이라 부른다. 지난 86년 서구노인복지관이 개관하던 때부터 매주 목요일 복지관의 식당을 지키며 300명 복지관 300명 급식 도맡아 7년 경전공부 활동의 힘  
의 급식을 도맡아 왔다. 12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7년의 세월 동안 목요일 하루만큼은 복지관에 그대로 반납하자는 서원을 세우고 자원봉사를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이들이 봉사를 마음먹게 된 것은 무주상보

시에 대한 세등선원 주지 능환스님의 가르침을 전해 듣고부터다. 불법에 대한 실천 없이 이 머리만 키워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던 터에, 대전시에 들어선 불교계 복지관에서 봉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모았다. 또한 복지관의 각종 재가봉사도 기회 닿는 대로 도와, 복지관 내에서 신뢰가 두둑하다고 이מים 복지사가 귀뻐한단다.  
7년 동안 이어온 월요일 경전공부도 꾸준한 봉사활동의 거름이 됐다. 신도회 권욱자 씨는 <화엄경>에서 '진리를 구하는 진실한 이는 들은 대로 실천하기에 힘쓴다'는 구절을 되새기며 회원들끼리 마음을 모았다며 "자리행과 이타행을 함께 이끌어가는 불자가 되겠다"고 발원했다. (042) 488-6297  
강신재 기자

##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 타타오 스님 (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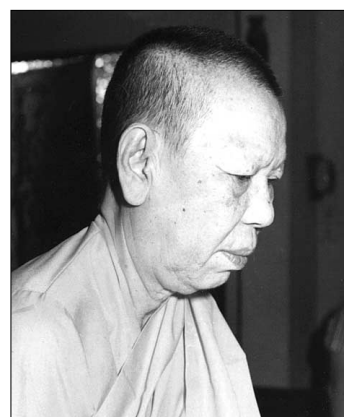
### 태국 최초의 비구니사원 설립

오늘날 태국에서 비구니 수계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은 나콤포돔(Nakhonpathom) 지방에 태국 최초 여성 불자들을 위한 사원을 설립한 타타오(Ta Tao, 본명 Voramai Kabilsing) 스님과 그의 속가 딸인 방콕 탐마사트대학 첫수만 카빌싱(Chatsumam Kabilsing) 교수이다.

젊은 시절 학교 교사였던 블라마이 카빌싱은 결혼해서 딸을 한 명 낳았다. 딸을 키우면서 그녀는 종교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고, 그런만큼 태국의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도 깊어져 갔다. 40대에 들어서자 그녀는 드디어 식발을 단행하고 방콕에서 존경받는 한 비구 스님에게 8계의 수계를 부탁했다. 그녀는 8계를 받았지만, '마에지(Mae Ji, 재가자로서 5계나 8계를 수지한 태국의 삭발 여성 수행자)'의 흰색 법복을 입지 않고 옅은 황색 법복을 입어 스스로를 '마에지'와 비구 양쪽으로부터 구별했다.  
이듬해인 1957년, 그녀는 방콕 인근의 나콤포돔 지방에 부지를 매

타타오 스님의 속가 딸인 첫수만 카빌싱 교수는 여성 불교에 대한 어머니의 이런 헌신적인 원력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첫수만 교수는 어머니의 뜻을 따르기 위해 태국에서 물론 인도와 캐나다의 대학에서 불교를 전공하였다. 그녀는 학술활동을 통해 '마에지'의 대변자로서도 유명해졌으며, 동시에 상좌부 불교국가의 비구니 교단 건립과 불교에서의 여성 지도력 향상을 주장했다. 탐마사트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여성불교와 관련한 논문과 서적을 출간하는 일 외에도 불교계 여성들을 위한 국제회의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984년, <국제 여성 불자 운동 회보(Newsletter on International Buddhist Women's Activities)>를 간행하기 시작, 현재 38개국에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띈다.

첫수만 카빌싱 교수는 비록 재가 여성이지만, 타타오 스님을 도와 태국에서 비구니 교단 건립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스리랑카의 아



◀타타오 스님

### 37년간 여성, 어린이, 고아 돕는 보살행

### 사회문제 해결 위해 노력하는 자세 강조

입, 여성 불자들이 머물 송다르마 칼리아티 사원(Watra Songdharma Kalyanti)을 건립했다. 또 어린이 학교와 고아원을 세우고 월간지와 단행본도 출판했다. 지난 37년 동안 보라마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재가자들을 돕는 보살행을 펼쳐왔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 주말마다 사원에서 정기적인 법회를 열고 있다.  
하지만 정식 비구니계를 받지 못한 보라마이에게는 승단의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한 점이 아쉬움의 제한을 받았다. 이에 따라 먼저 중국 교단으로부터 비구니계를 받으려고 시도했지만, 불가능함을 알게 된 그녀는 1971년, 대만에서 타타오라는 법명으로 비구니계를 수지하였다.

야 케마 스님처럼, 여성 불자들이 자신의 종교적 열원을 완전히 성취하기 위해서는 비구니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때에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성들에게 태국 재가신도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현실적인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교단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타오 스님이나 첫수만 교수가 선정 수행이나 불교 의식에만 전념하는 그런 비구니 교단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비구니라면 자신을 지원하는 신성한 교단의 힘을 통해 태국은 물론 세계를 위협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계속)  
김재경 기자

삶의 의미를 통찰하고, 영혼을 진정한 깨달음으로 이끄는

# 「전생, 빙의 전문」 특별워크샵

WWW.HYPNOS114.COM

아주 오래된 과학, 특별한 치유의 세계!

• 과정 이수 후 감사사례 중에서

약 300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최면은 그리스의 '잠자는 사원'이라는 곳에서 육체와 영혼의 치유는 물론, 신박의식을 행했던 데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TV를 통해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수준에서 간혹 소개가 되고 있지만 최면의 진정한 활용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의 폭은 아주 좁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하버드 대학 등 많은 유명 대학에서는 최면을 교과목으로 채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학 내에 최면 전문 클리닉 센터를 속속 설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최면을 치료의 한 방법으로 공식 승인해 놓고 있습니다.  
최면에는 여러 분야가 있으나 금년 한국최면아카데미에서 전생, 빙의 전문가 특별과정을 개설하여 전문가들이 스스로의 무한한 잠재영성 개발은 물론 직접 현장에서 타인의 영혼 치유에 필수적인 전생회상법과 빙의치리기법을 중심으로 최면교육과정을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바쁜 신 수험일정을 고려하여 총4회, 집중훈련 특별워크샵과정을 통해 단기 완성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최면을 알게 되면 인간이 지니고 있는 무한한 잠재능력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어 자신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게 됨으로써 건강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최면은 인간의 의식과 잠재의식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신활동을 실험, 검증,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학제체가 완성된 가장 유용한 방법일 뿐 아니라, 양 수 없는 전생과 현생의 업장과 습으로 인해 윤회의 고해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의 전생과 현생의 업을 정화시키고 진실한 삶으로 인도해 주는 동로이자 궁극을 향한 나침반이 되어 줄 것입니다.

먼저 이러한 인연으로 인도해 주신 부처님께 감동할 따름입니다. 한국최면아카데미를 만난 것은 저에게 크나큰 인연이었습니다. 그 인연을 통하여 저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저 스스로 현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저 자신의 전생을 알고 나서 참신할 때마다 밀려들던 양수 없는 허망함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마다 이전과는 다른 아주 깊은 선정으로 돌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중략 -  
또 하나는 신도들에게도 제가 깨달은 통찰을 얻은 그대로 전해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전생의 업장이나 여러 인연으로 인한 빙의로 인해 고통받는 숙인들과 빙의령에게 이야기하듯 진정한 불법을 전하고 깨달음을 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중략 -  
또한 여러 불사를 힘들이지 않고 이룰 수 있게 된 것 또한 이러한 인연을 통한 통찰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 주신 한국최면아카데미의 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연구와 발전 있으시길 바랍니다.  
00사 00장

### 교육내용 교육과정 이수 후 즉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최면 이론 : 최면개론, 활동범위, 최면양식, 시술방법, 유도기법, 심화기법, 자기최면, 자율훈련을 통해서 최면의 공통이론과 최면기법의 핵심노하우를 전달한다.
2. 연행회상 실기 : 현생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핵심원인을 잠재의식에서 찾아 최면심리치료 기법을 적용, 문제점해결 및 통찰, 자기강화를 통해 당당한 삶의 자세를 갖게 한다.
3. 전생회상 실기 : 현생과 연결된 전생의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의 업장을 해소하며 업장과 연결된 자신을 통찰하여 참회하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갖게 한다.
4. 미래진행 실기 : 자신의 미래를 운명처럼 바라보게 하기 보다는 현생과 전생을 통찰시키고 남은 인생을 가장 바람직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 확신시켜준다.
5. 영기현도 실기 : 빙의된 영기의 확인, 대화를 통한 원한관계 파악, 해원과정, 빙의중재치유, 영기치유, 영기현도기법, 천도확인 및 재접신 방지 영기유법.
6. 법회, 참선교실 : 즉각적으로 깊은 단계로 명상을 유도하여 법회의 감화를 높이고 참선교실을 열어 자기치유와 마음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신도관리자를 지원함.
7. 자유력향상기법 : 명상강화와 최면치유양식에 의해 심신질환의 자연치유력 향상

※ 본 교육내용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발송비 5,000원을 입금계좌로 보내신 후 연락주시면 안내자료와 자료비디오를 발송하여 드립니다.

• 전 화 : 042/255/0734~5  
•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대서동 248-301(천문빌딩 2층 전생전면회관 후문)  
•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 E-mail : admin@hypnos114.com



大野 任재형 박사  
성남대학교 석사  
한국최면아카데미 원장  
한국생물심리학회 회장  
한국교육심리학회 부회장  
대한최면심리학회 부회장  
뿌리찾기운동본부 부회장  
인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청주대학교 의대 수석대학생 강의



【특 전】 한국최면아카데미 인증 전생상담사 인증사 수여  
【정규개강】 2003년 11월 21일(금요일) 12:30  
2003년 11월 21, 28일, 12월 5, 12일  
【교육기간】 매주 금요일, 총 4회, 30시간  
오후 12:30~오후 8:00  
(교육 후에도 지속적인 자문 지원)

【수강신청】 입금 후 전화신청 또는 방문신청  
개인 및 소수 특별지도 별도 문의, 확실한 신분 보장  
【교육비】 200만원  
【입금계좌】 조흥은행 591-01-008086  
(예금주: 한국외국어대학교)  
【기타문의】 특별법회 초청 강연 및 개인상담 별도 문의